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내가 쓰지 않은 카드빚까지 갚으라는 요구,
항소심에서 뒤집었습니다.

카드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심 승소

1심 패소 취소 · 다른 카드사의 항소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해울

원고(반소피고), 피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가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카드 사용과 대출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들은 금융회사와 채무 부담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1심에서 카드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른 의뢰인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카드사가 항소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거래의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카드사와 관련된 판단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핵심은 명의와 인증정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비대면 카드 발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살폈습니다.

인증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 결제계좌 등록이 충분한 조치였는지도 검토했습니다. 계약 시기와 발급 절차를 구분해 책임을 판단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1심 패소 취소 · 다른 카드사의 항소도 기각

받아야 할 돈과 막아야 할 청구,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명의도용으로 떠안게 된 카드 채무. 해울은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채무 부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 본 적도 없는 카드대금과 대출금이 청구된다면?
- 카드사는 인증을 거쳤으니 책임지라고 한다면?
- 1심에서 졌지만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울은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의 항소를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뒤에 이루어진 카드 이용계약에 관하여 카드사가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전 계약과 이후 계약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거래별로 효력을 검토한 것입니다. 판결은 다른 의뢰인에 대한 카드사의 항소도 기각하여 해당 채무 부존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의뢰인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판결 별지의 카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체 금융기관과의 모든 채무를 없앤 결과는 아니며, 항소심 대상이 된 카드 채무에 관한 승소입니다.

명의로용 피해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회사의 청구를 다투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미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거래별 본인확인 과정은 다시 살펴볼 쟁점입니다.

명의로용으로 떠안게 된 카드 채무. 해울은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채무 부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명의로용으로 떠안게 된 카드 채무. 해울은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채무 부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 명의로용자를 처벌해도 금융회사 독촉이 계속된다면?
- 카드 발급 시기마다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 가족이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